

## ‘동심으로의 회귀’ 이끄는 성인동화들

어른 속에 숨은 아이의 순수성 복원...  
인간의 악마성 파헤친 패러디 동화도 선보여

요즘 출판계에는 성인동화 붐이 한창이다. 물신의 시대에 순수한 서정의 세계를 회복시키는 동화적 상상력이 독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제 독립된 장르로 자리잡은 성인동화는 인간의 순수성과 악마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성인동화는 앞으로도 다양한 내용과 형식이 실험되는 장르로 번창할 것으로 보인다.



‘과랑새’를 찾아 떠났던 아이들이 이젠 어른이 돼 동화의 세계로 회귀하고 있다. ‘어른을 위한 동화’ ‘어른이 읽는 동화’ ‘어른이 된 아이들에게 보내는 동화’ 등의 이름을 단 동화책들이 어른의 잠자던 동심을 깨우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동화를 잃어버린 물신의 시대에 오히려 동화를 갈망하는 역설적 현상으로 읽힌다.

“어른들은 누구나 다 처음엔 어린아이였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그다지 많지 않다.” 생 텍쥐페리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의’ 레옹 베르트에게 《어린왕자》를 바치면서 쓴 이 글은 성인동화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준다. 한때 어린아이였던 어른에게 그 기억을 되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어른을 위한 동화다.

### 인간본질에 대한 문학적 성찰

사실 어른도 읽을 수 있는 동화는 예전부터 있었다. 청소년 독자층에게 여전히 읽히는 《어린왕자》《아낌없이 주는 나무》《꽃들에게 희망을》《운디네》《나의 라임오렌지 나무》 등은 고전의 대열에 든다. 하지만 90년대 중반 문학동네에서 출간하기 시작한 <어른을 위한 동화> 시리즈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성인동화 시대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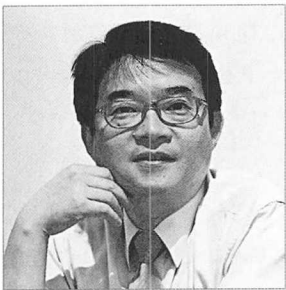
C.M. 뫼일란트의 철학우화 《당나귀 그림자에 대한 재판》(윤시향 옮김)으로 첫발을 디딘 이 시리즈는 안도현의 《연어》《관계》, 김지수의 《들꽃

이야기》, 김진경의 《은행나무 이야기》, 이하석의 《꽃의 이름을 묻다》, 전경린의 《여자는 어디에서 오는가》, 한승원의 《어린벌레》, 이병천의 《세상이 앓은 의자》, 하중오의 《도요새》 등 열권을 펴냈다.

문단의 중견과 신진 작가가 두루 참여해 집필한 이 시리즈는 성인동화 장르를 개척한 공이 크다. 물고기·들꽃·나무·별·새 등 자연물을 소재로 인간의 본질에 대한 문학적 성찰이 담겨 있어 동화의 품격을 한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인동화의 대중화에 성공한 시리즈로는 열림원의 <어른이 읽는 동화>를 꼽을 수 있다. 정호승의 《연인》《항아리》, 안도현의 《짜장면》 등 세 권

## 시적 상상력과 감성적 문체로 빛은 ‘성인용’ 동화



《연어》《관계》를 펴냈던 시인 안도현씨(39)가 이번에는 《짜장면》(열림원)을 선보였다. 이 작품은 이중적인 아버지의 모습에 반발해 집을 나간 열일곱살 난 사내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일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전개된다. 성장소설 형식을 띤 이 책에서 안씨는 열일곱살의 의미를 묻는다.

— 어른을 위한 동화를 쓰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우리 독서시장에서 청소년층은 소외됐었다. 초등학교까지 동화책을 읽다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바로 고전소설로 넘어간다. 그 틈을 메울 책이 없다. 《어린왕자》《꽃들에게 희망을》《나의 라임오렌지 나무》처럼 성장기의 독자층을 끌어안을 작품을 써 보고 싶었다.”

— 어른을 위한 동화의 장르적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시인은 대체로 서사에 약하지만 감성으로 사물을 이해하는 데 뛰어나다. 어른동화는 단순한 구성 속에 시적 상상력과 감성적 문체를 담아낼 수 있다. 어른과 어린이, 동화와 소설의 ‘중간찾기’가 어른동화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 이 작품에서 열일곱살이나 열여덟살을 아름다운 시절로 회상하면서 어른의 세계를 비판했다. 이 책에서 무엇을 말하려 했는가.

“열일곱살, 열여덟살 때 나는 너무 평범하게 살았다. 주인공을 빌어 내가 놓쳐버린 순수한 열정을 살려보고 싶었다. 어른들의 위선적 세계뿐만 아니라 아이들 속에 들어 있는 어른들의 세계도 균형적으로 봐야 한다.”

— 앞으로 어른을 위한 동화는 계속 쓸 생각인가.

“그렇다. 성인동화에 대한 독자층이 형성돼가고 있다고 본다. 시에서 하지 못했던 애기를 들려주고 싶다. 우화와 성장소설 형식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형식을 실험해보고 싶다.”

이 나온 이 시리즈는 시적 상상력과 감성적 문체, 그리고 내용을 돋보이게 하는 삽화가 결합돼 고정독자를 확보했다. 앞으로 고종석·황인숙·조은의 동화도 선보인다.

샘터에서 펴내는 <어른을 위한 동화>도 성인동화 붐에 힘을 보탤다. 박완서의 <속삭임>, 정채봉의 <입 속에서 나온 동백꽃 세 송이>, 크리스티네 너스틀링어의 <하얀 코끼리 이야기>(김경연) 등은 꿈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마음 속에 간직된 순수한 내면풍경을 되찾게 해준다.

### 인간의 숨겨진 욕망 파헤쳐

어린이들의 전유물로만 여겼던 해외 고전동화도 어른용으로 재번역·편집되고 있다. 현대지성사에서 나온 <그림형제 동화전집(전2권)>(김열규), <안테르센 동화전집(전3권)>(윤후남)은 일종의 무삭제 완역본. 이 전집들은 청순함, 아름다움, 도덕적 교훈 등 어린이용으로 널리 알려진 동화뿐만 아니라 혹독한 이기심, 잔인한 복수심, 소름끼치는 공포를 담은 동화까지 과없이 보여준다.

<헬가 게버트의 그림동화>(안영란), <헬가 게버트의 1001밤 동화>(김경연), <헬가 게버트의 페미니즘 동화>(이영희, 이상 샘터)도 미화와 윤색을 거치지 않은 판본을 소개해 동화의 원형적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권선징악의 구도를 깨는 이야기 전개, 노골적인 성적 묘사가 동화의 숨겨진 일면을 보여준다.

고전동화를 실마리 삼아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전개하거나 풍자하는 동화도 줄을 잇고 있다. <어른을 위한 잔혹동화> <어른을 위한 새빨간 거짓말>(국수경 편역, 백암)은 고전동화의 배후에 숨은 인간의 사악한 욕망을 독설로 파헤친다.

동화의 해피엔딩 구조를 뒤집은 <마법에 걸린 동화>(엘렌 다틀로·테리 윈들링, 박혜수·정은아, 고도), <성서>의 이야기를 패러디한 <이브야 네가 어디에 있느냐>(에드워드 P. 모저, 장미란, 실천문학사) 등은 패러디 동화의 범주에 포함된다.

하지만 여전히 성인동화의 주류는 순수와 아름다움, 희망,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앞집에 살던 친구 베렐레>(에프라임 세벨라, 이상원, 거름), <행복한 바보들이 사는 마을, 켈름>(아이작 B. 싱어, 황명걸, 두레), <세

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조나단 스노우, 박은주, 문학사상사), <달은 다 알고 있지>(이탈로 칼비노 외, 문예당) 등이 그것이다.

최근에는 환경동화까지 선보였다. 팀 윈튼의 <블루백>(이동욱, 놀와)이 그것으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자의 삶, 자연을 황폐화시키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정어리떼의 죽음, 멸종위기의 물고기를 지키려는 인간의 노력 등이 어우러져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되새겨보게 한다.

이처럼 '어른이 읽는 동화'에는 '어른'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와 '동화'에 방점을 찍은 이야기로 나뉜다. 전자가 잔혹성·악마성·성욕 등 인간의 본성탐구에 무게중심을 둔다면, 후자는 순수성·사랑·희망의 전언을 담고 있다. - 박천홍 기자

### “필자 발굴이 관건이다”

성인동화가 출판시장에 본격적으로 얼굴을 내민 것은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다. 여기에는 몇가지 사회적 정황이 작용했다. 열림원의 정은숙 주간은 90년대의 내면탐구 경향과 영상세대의 등장에 주목한다. “출판의 사회적 발언이 중시된 80년대와는 달리, 90년대에는 사소한 일상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경향이 강화됐다”며 성인동화가 팬시상품처럼 소비되는 현상을 지적한다.

샘터사의 정채봉 주간은 이런 현상을 문명사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혼탁한 세태를 벗어나 책에서 위안을 얻으려는 독자층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그는 더 나아가 성인동화는 기존의 장르개념에서 일탈하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한다. 어른과 아이의 읽을거리가 구분되던 시대가 지나갔다는 얘기도.

앞으로 성인동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두 낙관적이다. 이미 대형서점에서 독자적인 코너를 마련했고 청소년층 고정독자가 형성됐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결국 관건은 필자개발 문제로 귀착한다. 정은숙 주간은 “성인동화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독자의 정서에 호소할 수 있는 필자를 발굴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한다.

### 편집부 경력 사원 모집

### 정신세계사에서 같이 일합시다

경력 3년 이상, 외국어와 컴퓨터를 잘 할수록 좋고, 되도록 오래 근무할 생각이 있는 사람. 이런 조건에 맞는 분이면, 사진이 붙은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임의의 정신세계사 발행도서 1권에 대한 독후감 1부(A4 1면), 자신이 주된 역할을 해서 만든 편집물 1점을 6월 10일까지 반드시 '우편으로' 보내 주십시오. 검토 후 면접할 의사가 있는 분께만 6월 15일 이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결봉에 '입사지원 서류'라고 쓰시고 문의나 직접 방문은 자제하셔서 저희 시간을 아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0-280 서울시 중로구 원서동 171번지 원서빌딩/전화 733-3135/팩스 739-8791

### 편집자를 찾습니다

자 격 :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편집 1년 이상 경력자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 소개서  
제출기한 : 2000. 5. 30  
보 낼 곳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84-4  
경기빌딩 305호  
E-mail : info@moonye.com

좋은책 만들기 35년 **문예출판사** 전화 393-5681~4 팩스 393-5685  
http://www.moonye.com